

---

# 일반논문

---



## 18세기 말~19세기 천주교 서적 유통과 국문 독서문화의 상관성 연구\*

이 민 희\*\*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매체의 노출 빈도와 문자해독률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국문 사용자의 증가와 국문본 서적의 유통 및 출판 문제를 천주교 서적과 국문 독자와 연결시켜 살펴본 것이다. 특별히 그동안 국문 독자의 형성 문제와 관련해 간과하기 쉬웠던 천주교 신자들의 국문 사용과 국문 천주교 서적의 번역과 필사 및 간행, 그리고 그 유통의 의미를 실록과 외국인 기록물을 중심으로 역사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를 수용한 지식인 신자들이 서적을 통해 신앙을 키워나가는 한편, 이를 국문으로 번역 또는 집필한 국문본 천주교 서적이 등장함으로써 여성 및 하층민 독자층이 형성, 증가할 수 있는 직간접적 자양분이 마련되었다. 이때 천주교 신자들의 국문 교육과 국문본 천주교 서적의 필사 내지 유통, 그리고 간행은 하층민과 여성의 문자해독률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2S1A5A8023534).

\*\*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주제어: 천주교 서적, 국문 독자, 독서문화, 신유박해, 출판 및 유통  
Catholic books, reading culture of Korean book, Korean readers, publishing and distribution

을 높이고, 더 나아가 국문소설의 독서 인구와 유통 문화를 견인하는 한 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천주교 서적 유통과 국문 독서 환경은 국문소설의 그것과 유사하게 발전해 나갔다. 신유박해(1801) 이전부터 국문 천주교 교리서를 필사하고 이를 판매하는 신자들이 생겨나고, 이들 서적을 소장한 채 신앙을 지켜 나가고자 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필사본 형태의 천주교 서적은 1860년대에 이르러 목판본 간행이 가능해졌고, 1880년대에는 활판본 서적이 나타났다. 이런 천주교 서적의 유통 및 출판문화의 변화는 순수 필사본 소설이 세책본 소설로서 상업적 유통의 과정을 거쳐 방각본 소설과 활판본 소설 형태로 변화해 간 유통 및 독서문화와 흡사하다. 이처럼 천주교 서적의 대량 생산과 공급은 신자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 천주교 서적과 국문 소설의 출판 및 유통의 변화를 독서문화의 형성 및 국문 독자의 증가 등 제반 환경의 형성과 연관 지어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 1. 들어가며

17세기 이후로 소설의 창작과 번역이 활발해지면서 한문소설은 물론, 국문소설이 대거 등장했다. 특히 국문소설은 중국소설의 번역 또는 국내 창작에 힘입어 17세기 후반 이후로 사대부가의 여성이 소설의 주 독자층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국문 사용 기회가 확대되고 독서물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문 소설 독자가 늘어난 것이다. 이는 어문생활의 변화까지 자연스럽게 동반하게 되었다. 한문을 매개한 어문생활의 주체였던 상층 남성들 외에 국문일기나 편지, 국문 가사와 국문 소설 등 국문 중심의 독서물과 생활문을 향유하는 상층 여성과 하층민의 성장이 독서문화의 주체로 급부상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설명 내지 이해는 다소 도식적이며 피상적이다. 또한 국

문소설의 유행(향유)으로 여성 독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곧, 공급이 수요를 결정했다는 의미인데, 과연 그러한지 따져볼 일이다. 왜냐하면 그와 반대로 여성 독자의 증가가 국문소설의 유행을 견인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성 독자 증가의 구체적 내용 또는 요인이 무엇인가이다. 상층 여성 독자의 자발적 증가라는 설명만으로는 조선후기 국문소설의 확장과 다양한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기 어렵다. 국문소설의 유행으로 여성 독자층이 확대되었다는 식의 도식적 이해에서 벗어나, 여성 독자 내지 국문소설 독자 형성 요인과 그 과정을 보다 실상에 가깝게 다면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사실 국문을 익힌 여성 독자가 비단 사대부 여성만이 아니었고, ‘국문소설 독자=국문 사용자’라기보다 ‘국문소설 독자<국문 사용자’라고 상식적 이해를 고려하더라도 사대부 여성 이외의 국문 사용자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본고는 특별히 천주교 서적의 유통과 천주교 신자의 증가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천주교 서적의 보급 및 천주교 신자의 증가가 국문소설의 유행과 국문소설 독자의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그 상관성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당시 신분제도가 공고했던 조선사회에서 사대부 여성 이외에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던 여성과 하층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실제로 천주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천주교 서적의 유통과 향유가 독서 주체와 출판문화에 미친 영향관계를 살펴 국문소설의 독서 및 출판문화의 영향 관계까지 연결시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는 국문 독자의 형성과 발달 문제를 천주교 관련 서적의 번역과 유통, 그리고 향유 문제를 매개로 고구(考究)하고자 함의 다름 아니다. 기존에 서학서의 전래와 한역교리서의 보급, 유통에 관한 논의 자체는 이미 상당히 이루어졌지만<sup>1)</sup> 이들 천주교

1) 배현숙(1984), 『조선에 전래된 천주교 서적』, 『한국교회사 논문집』 1(한국천주교회 창설 200주년기념), 한국교회사연구소.

관련 서적 유통과 출판이 국문 독자 형성과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으며, 특히 한글 소설 발달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세히 살핀 성과는 많지 않다.<sup>2)</sup>

이에 제2장에서는 먼저 신유박해(1801년)를 기점으로 삼아 그 전후의 변화상을 비교하며 천주교 서적의 번역 및 유통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살피고, 제3장에서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천주교 서적이 상층 지식인뿐 아니라 하층 남성과 여성 독자 형성, 그리고 독서문화의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속살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천주교 국문 서적과 이의 향유 가능성이 국문 소설의 독서 문화 발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내용을 재고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 2. 천주교 서적의 국문 번역 및 유통

### 2.1. 신유박해(1801) 이전: 국문본 천주교 서적의 출현과 유통

국내에 처음 유입된 천주교 서적은 성경이 아닌 교리서였다. 허균을 비롯해 이수광 등 중국을 다녀온 사신들이 천주교 관련 서적을 국내에

---

이만열(1987), 『한국기독교 문화운동사』, 대한기독교출판사.

차기진(2002), 『조선후기의 서학과 책사론 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노용필(2009), 『조선후기 천주교 한글 필사본 교리서의 유통』, 『인문논총』 23,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노용필(2008), 『한국천주교회사의 연구』, 한국사학.

김성태 외(2011), 『한국천주교회사 1-4』, 한국교회사연구소 등.

2) 조광(2006), 『朝鮮後期 西學書의 受容과 普及』, 『민족문화연구』 4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 199-235; 정병설(2008), 『조선후기 한글 출판 성행의 매체사적 의미』, 『진단학보』 106, 진단학회, pp. 145-164 등에서 천주교 서적과 국문 서적의 유통 및 관계에 대한 전반적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을 뿐,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논의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처음 가지고 들어온 것도 당시 중국에서 활동하던 서양 신부들이 쓴 한문본 교리서였다. 성경은 신약 성서 완역본이 19세기 후반에야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다.<sup>3)</sup>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천주교 서적이라 하면 한문본 또는 국문번역본 형태의 쪽 복음서, 또는 교리서를 의미한다 하겠다.

이 한문 서학서는 18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천주교 신앙서라기보다 서양의 과학기술서라는 측면에서 큰 거부감 없이 지식인 사이에 수용되었다. 천주교 서적을 제가백가나 불교의 책처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주교 서적을 학습한 상층 지식인 중에서 신앙인이 나오게 되면서 천주교 서적은 천주교 신앙 형성에 있어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벽(李蕨)은 친구(=이승훈)가 보내 준 많은 서적을 받자마자 외 판집을 세내어 그 독서와 묵상에 전념하기 위하여 들어앉았다. 이제 그는 종교의 진리의 더 많은 증거와, 중국과 조선의 여러 가지 미신에 대한 더 철저한 반박과, 7聖事의 해설과, 교리문답과 복음성서의 주해와, 그 날 그 날의 성인행적과 기도서 등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을 가지고 그는 종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대강 알 수 있었다. (중략) 이벽 자신은 곧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우선 중인(中人) 계급의 친구들 중 학식과 덕망이 뛰어난 몇 사람에게 말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활기 있고 박력 있는 말을 듣고서 거의 즉시 응하였다. 그들 중에는 최창현(崔昌顯), 최인길(崔仁吉), 김종교(金宗敎)가 있었다. 이벽은 여러 양반에게도 전교하

3) 존 로스(Ross) 목사와 맥킨타이어(McIntyre) 목사가 한국인 서상문 등과 함께 공동으로 번역한 『예수성교 누가복음』이 1882년에 만주 봉천에서 처음으로 간행되었다. 이덕주(2009), 『한국교회 이야기』, 신앙과지성사, p. 21, p. 29, p. 32; 이민열(1991), 『서상문 행적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한국 기독교와 민족의식』, 지식산업사 등 한편, 중국이 아닌 일본에서도 성경 번역이 착수되었다. 1882년 고종의 후의를 입어 일본 유학길에 오른 양반 이수정(李樹廷, 1842~1886)은 일본에서 성경을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에 착수해 1884년에 한문 성경에 우리말 토(구결)를 단 형태의 4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요코하마[橫濱]에서 출판했다. 김수진(2006), 『한국기독교 선구자 이수정』, 진흥, pp. 112-138.

여 그들을 입교시켰다.<sup>4)</sup>

실제로 남인 계열의 양반을 중심으로 천주교 서적을 학습한 후, 이를 신앙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실천하려는 모임이 나타났다. 일부 남인 지식인들이 1778년에 주어사(走魚寺)와 천진암(天真菴)에 모여 행한 강학(講學) 모임이 대표적이다.<sup>5)</sup> 이는 국내 천주교 수용이 강제적이지 않고, 이성과 논리에 근거한 자생적 수용이란 측면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17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천주교 서적은 양반 지식인 신자를 중심으로 한 한문본 형태로 유통되었다. 1791년 실록 기록을 보면, 윤지충(尹持忠)이 1783년에 김범우의 집(명례방=지금의 명동 성당 근처)에 갔다가 『천주실의』와 『칠극』을 빌려다가 베껴 쓴 뒤 다시 돌려보냈다고 했다.<sup>6)</sup> 이때 이들 책은 간략하고 실천하기 쉽다고 했다. 그만큼 이 책들은 신자들 사이에서 금방 퍼져나갈 만한 이유가 충분했다. 마테오리치 신부가지은 『천주실의』와 판토타 신부의 『칠극』과 같은 한문본 교리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김범우는 당시 중국에서 서적을 들여오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담당했던 역관이었다. 지식인 사이에서 천주교 서적을 돌려 가며 읽거나 필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

4) 샤를로 달레(1979), 안응렬·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上』, 분도출판사, pp. 307-308.

5) 이장우(2009), 『조선 천주교회의 설립』, 『한국천주교회사 1』(한국교회사연구회 편), 한국교회사연구소, pp. 231-238.

6) 『정조실록』 15년, 1791년 11월 7일; 조광 위음(1997), 『조선왕조실록 천주교사 자료 모음』,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 p. 61. “윤지충이 공술하기를, 계묘년(1783) 봄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갑진년(1784) 겨울에 서울에 머무는 동안, 마침 명례동(明禮洞)에 있는 중인(中人) 김범우(金範禹)의 집에 갔더니, 집에 책 두 권이 있었는데, 하나는 『천주실의』(天主實義)이고 하나는 『칠극』(七克)이었습니다. 그 절목에 「십계」와 「칠극」이 있었는데 매우 간략하고 준행하기 쉬워서 그 두 책을 빌려 소매에 넣고 고향집으로 돌아와 베껴 두고는 이어 그 책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젊은이(=이승훈, 인용자 주)는 신앙에 귀의하게 되었으며, 꼭 알아야만 하는 교리에 대해서 배운 다음,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조선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천주교에 관한 책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왔습니다. (중략) 그는 자기가 가지고 온 책들을 가족과 친척, 친구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많은 조선 사람들이 이 책들을 읽고 또 이 새 신자가 들려주는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는 즉시 참된 하느님을 알게 되었으며, 그 결과 얼마 안 가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중략) 그리하여 마침내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천주교 신자수가 무려 4천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sup>7)</sup>

여기서 눈에 띄는 기록은 바로 천주교 서적 유입과 신자 증가에 관한 것이다. 국내 최초의 세례자인 이승훈(李承薰, 1756~1801)은 1784년에 사절단의 일원으로 북경에 갔다가 들어올 때 많은 수의 천주교 서적을 가지고 왔다.<sup>8)</sup> 그리고 그는 그 책들을 다른 신자들에게 나누어주어 함께 보게 했다. 이들 책들은 주로 중국 선교사로 온 서양 선교사들이 저술한 한문 교리서였다. 이런 서적들이 1780~90년대에 지식인 신자들 사이에서 널리 읽혔다.<sup>9)</sup> 신부나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위 인용문 내용처럼 5년 사이에 4천여 명이나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천주교 교리서를 신자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교육한 결과였다.

7) 윤민구 역주(2000), 『한국 초기교회에 관한 교황청 자료모음집』, 가톨릭출판사, pp. 114-116. 위 인용문은 ‘북경의 구베아 주교가 사천 대리 감목 디디에르 주교에게 보낸 1797년 8월 15일자 편지’에 적혀 있는 내용이다.

8) 당시 이승훈이 가지고 들어온 서적 중에는 『二十五言』(M. Ricci), 『表度說』(S. de Ursis, 熊三拔), 『同文算指』(M. Ricci), 『勾股義』(M. Ricci), 『教要序論』(F. Verbiest), 『聖經直解』·『袖珍日課』(E. Diaz), 『天主聖教日課』(N. Longobardi, 龍華民), 『聖教切要』(저자미상), 『聖年廣益』 등이 있었다.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저술 주요 한문본 천주교 서적은 다음과 같다.

(가) 홍낙안(洪樂安)이 주장하길 1787년에 “성균관 근처 김석태(金石太)의 집에서 주야로 (『天主聖教日課』 제 1권에 있는) 早晚課를 외웠다”고 한다.<sup>10)</sup>

(나) 1801년에 정인혁(鄭仁赫)이 ‘기유년(1789) 봄에 권일신(權日身)이 『袖珍日課』을 최필공(崔必恭)에게서 빌려 보았다’고 진술했다.<sup>11)</sup>

(다) 기유(己酉)년(1789)에 제가 이준신(李儁臣)을 통해 서양서인 『기인십편』(畸人十編), 『진도자증』(眞道自證) 각 2편을 얻어 보았고, 그 해에 또 삼전동인(三田洞人)으로 인해 『교요서론』(敎要序論), 『만물진원』(萬物眞源)을 얻어 보았는데, 말이 간사하고 거짓되어 별로 본받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sup>12)</sup>

저자	서적명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瑪竇)	『天主實義』, 『畸人十篇』, 『辯學遺牘』, 『幾何原本』, 『同文算指』, 『坤輿萬國全圖』, 『交友論』, 『二十五言』, 『勾股義』, 『兩儀玄覽圖』
판토하(D. Pantoja, 龐迪我)	『七克』
삼비아시(F. Sambiasi, 畢方濟)	『靈言蠡勺』
알레니(G. Aleni, 艾儒略)	『職方外紀』, 『萬物眞原』, 『每月統紀』, 『萬國全圖』
사바냐크(E. de Chavagnac, 沙守信)	『眞道自證』
마이아(J. de Mailla, 馮秉正)	『聖世菟菴』, 『聖年廣益』
우르시스(S. Ursis, 熊三拔)	『泰西水法』, 『表度說』
페르비스트(F. Verbiest, 南懷仁)	『坤輿全圖』, 『敎要序論』
그리말디(P.M.Grimaldi, 閔明我)	『方星圖解』
바노니(A. Vagnoni, 高一志)	『空際格致』
로 불리오(J. Rho, 羅雅谷)	『日躔表』, 『日躔曆指』
디아즈(E. Diaz, 陽瑪諾)	『聖經直解』, 『袖珍日課』, 『天問略』
롱고바르디(N. Longobardi, 龍華民)	『天主聖教日課』
저자미상	『聖敎切要』

- 9) 차기진(2002), 『조선후기의 서학과 척사론 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pp. 158-159.  
 10) 홍낙안, 『魯巖集』 권1.  
 11) 이기경 편, 『벽위편』 권1, 『刑曹啓辭』, 1791년 11월 13일.  
 12) 『秋案及鞫案』, 『辛酉邪獄罪人李基讓等秋案』, 1801년 3월 17일: 서종태·한건 역음(2004), 『천주교신자재판기록(上)』, 국학자료원, pp. 298-299.

(다)에 의하면, 1801년 신유박해 때 붙잡힌 김건순(金健淳)이 이미 기유(1789)년에 베르비스트(F. Verbiest) 신부가 지은 한문본 『교요서론』을 얻어 읽었다고 했다. 그리고 (가)~(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자들마다 교리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먼저 머리로 교리 내용을 이해한 후, 가슴으로 확신한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한 것이다. 교리서를 외우고, 빌려 보면서 신앙을 키워 나간 것이다. 그런데 (다)에서 1789년에 빌려 보았다던 『교요서론』이 신유박해 때 여성신자인 한신애(韓新愛)의 집에서 압수되었다. 이때 그녀가 소장하고 있던 것은 국문본 『교요서론』이었다.<sup>13)</sup> 이는 몇 년의 시간이 흘러 동일 교리서가 한문본에서 국문본 형태로 번역, 유통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독자 또한 상층 지식인에서 일반 여성으로 확대되어 나갔음을 잘 보여준다.

한글 번역본 교리서로는 1787년에 나온 『성경직해』가 최초라 할 수 있다.<sup>14)</sup> 디아즈 신부가 쓴 『성경직해』를 중인(中人) 신자인 최창현이 국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국문본 교리서가 등장해 비로소 여성과 아이, 그리고 하층민까지 쉽게 천주교 신앙을 접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안에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국문본 교리서는 짧은 시기에 널리 퍼져 전국 여러 곳에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오늘날 가장 우려되는 바는 서양에서 유래한 일종의 사설(邪說)이 점차 치성(熾盛)해질 형세인 것이다. 작년(1787) 봄과 올해 여

13) 노용필(2008), 「남회인의 《교요서론》 수용 및 국문본 《교요서론》 유포와 조선후기 천주교의 성장」, 『한국천주교회사의 연구』, 한국사학, pp. 186-187. 『사학정의』에 의하면, 정복혜(鄭福惠)라는 이가 여러 지역의 신자들로부터 모은 국문본 『교요서론』을 한신애에게 맡겨 그녀가 이 책을 보관하고 있다가 발각되었다.

14) 조광(2006), 「朝鮮後期 西學書의 受容과 普及」, 『민족문화연구』 4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 209. 그러나 번역 시기에 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다. 샤를르 달레(1979), 안응모·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上』, 분도출판사, p. 315; 이장우(2009), 「한역 서학서의 도입과 유학자들의 반응」, 『한국천주교회사 1』, 한국교회사연구소, p. 180 등을 참고할 것.

름에 충청도 일대에서는 거의 집집마다 외우고 전하기에 이르러서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여 등출(騰出)해서 아래로는 부녀자나 아이들에게까지 이르렀다.<sup>15)</sup>

(마) 홍양호가 장계를 올려 말하기를, “진산(珍山)군수 신사원(申史源)이 전에 예산(禮山) 지역을 다스릴 때 민간의 요서(妖書)를 거 뒤들여 관청의 아전에게 맡겼다’고 이미 신(臣)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신에게 답한 편지에 말하기를 ‘예산 촌에 사는 백성들이 갖고 있는 언문 번역서나 베낀 책을 독 형리의 상자 속에 맡겨 두었는데 그 중에 『성교천설』(聖教淺說)과 『만물진원』(萬物眞源)은 모두 증거가 있다’ 하였습니다. 실은 이 두 책이 간행된 것인지 베낀 것인지 모르겠지만, 촌사람들에게까지 미칠 만큼 성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행함이 이와 같다면 몰래 간행한 것이 있다 한들 역시 뜻밖의 일이라 하기 어렵습니다.”라 했다.<sup>16)</sup>

(바) 정언 이경명(李景溟)이 상소하기를,

“오늘날 세속에는 이른바 서학이란 것이 진실로 하나의 큰 번교입니다. 근년에 성상의 전교에 분명히 계시하였고 처분이 엄정하셨으나, 시일이 조금 오래되자 그 단서가 점점 성하여 서울에서부터 먼 시골에 이르기까지 돌러가며 서로 속이고 유혹하여 어리석은 농부와 무지한 촌부(村夫)까지도 그 책을 언문으로 베껴 신명처럼 받들면서 죽는다 해도 후회하지 않으니, 이렇게 계속된다면 요망한 학설로 인한 종당의 화가 어느 지경에 이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조정에서 여러 도의 방백과 수령들에게 엄히 신칙하여 다시 성해지는 폐단이 없게 하소서.”하니<sup>17)</sup>

15) 이규경, 『斥邪教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下). “今日最可憂者, 西洋一種邪說, 將有漸熾之勢, 甚至於乙巳之春, 昨年之下, 湖右一帶, 幾至家誦戶傳, 眞諺翻膾下及婦孺.”

16) 『承政院日記』 권90, 1791년 11월 3일. “洪仁浩啓曰, 珍山郡守申史源, 前任禮山時, 收聚民間之妖書, 付之官吏云者, 前既向臣言之. 又於今番答臣書中, 有曰禮山村氓輩, 諺翻或膾書者, 卽付刑吏櫃中, 而其中聖教淺說萬物眞源二冊, 皆有證據云云. 臣未知二冊, 卽刊與膾之何居, 而至及於村氓, 其盛可知也. 其盛如此則暗地刊出, 亦非意外也.”

(라)는 1788년에 진사 홍낙안(洪樂安)이 천주교를 배척하려는 목적에서 지은 대책문(對策文)의 일부다. 여기서 그는 한문 교리서를 번역하고 필사한 국문 교리서가 여성과 아이들에게까지 널리 퍼져 있었노라고 했다. 이미 1787년에, 충청도 지역에서는 천주교 서적이 번역, 등출되어 민간에 급속도로 퍼져나간 사정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예산 지역(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성교전설』과 『만물진원』의 국문 번역본과 필사본 교리서가 성행했다. 그렇지만 이들 책들이 인쇄본인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소문만 무성했을 뿐, 그 시기에는 아직 천주교 서적이 인쇄, 출판되지 못했다.<sup>18)</sup> 한편, (바)는 1788년 8월 2일자 실록 기록으로, 이미 서울과 지방의 농부와 촌부(村夫)까지 언문책을 베껴 읽으며 천주교 신앙이 깊이 파고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생적으로 천주교를 배우고자 강학 모임을 가진 지 10여 년 후, 그리고 이승훈이 중국에서 세례를 받고 들어온 지 4년이 지난 시기의 상황이었다.

비록 유교 중심적 지배이념에 반하는 사상적 도전과 이단 종교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천주교 신앙은 남녀 및 상하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깔고 서서히 조선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을 바꾸는 한 요인이 되었다. 이는 의식이 존재를 결정한 것으로, 이런 의식 변화가 양반 지식인뿐 아니라 여성과 하층민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식자층 신자를 위한 한글 번역 교리서와 같은 책이 나타난 것은 바로 ‘신분’을 ‘존재’로 바꿔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문본 천주교 서적을 한글로 번역한 서적이 나타난 결과로 국문독자가 생겨나거나 증가한 것이 아니라, 국문 교리서가 필요하다는 독자(신자)의 요구에 의해 국문 교리서가 출현하게

17) 『정조실록』 26권, 1788년 8월 2일. “正言李景溟上疏曰, 今俗所謂西學, 誠一大變怪. 頃年聖教昭揭, 處分嚴正, 而日月稍久, 其端漸熾, 自都下以至遐鄉, 轉相誑誘, 雖至愚田氓, 沒知村夫, 謔謔其書, 奉如神明, 雖死靡悔. 若此不已, 則妖學未流之禍, 不知至於何境. 請自朝家, 嚴飭諸路方伯, 守宰, 俾無更熾之弊.”

18) 『실록』에는 천주교 서적의 간행을 의심하는 내용의 서술이 종종 보인다. 그러나 정작 책으로 간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글 교리서의 등장은 커다란 전환적 사건과도 같았다. 한문본 교리서를 수용함으로써 ‘서학’ 차원에서의 학습이 지식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국문본 교리서의 등장은 ‘서학’이 아닌 ‘종교’ 차원에서 천주교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다. 국문본 교리서의 등장은 자연스럽게 여성과 하층민 신자의 증가를 불러왔다. 천주교 신자들 사이에서 문자 교육이 강조되고 이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 것이 주요했다. 사제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상황에서 신자가 전국 각처에서 생겨나고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천주교 교리서를 비롯한 신앙서적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효과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문본 교리서의 등장은 한문본 교리서의 국내 유입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전국’ 단위의 독서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천주교 서적이 국문본으로 번역되어 신자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는 하나, 일반 신자들이 모두 한글을 깨치고 국문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낭송을 통한 신앙 교육도 효과적이었다. 문맹 신자일지라도 낭송(낭독)을 듣고 교리 내용을 학습하거나 이해할 수 있었다. 예컨대, 『성경직희광익』은 교우촌, 또는 공소 모임에서 낭독하기 위한 ‘독서집’으로 낭송되었는데<sup>19)</sup> 일반 신자들은 당시 낭독의 방식으로 책을 읽던 독서 습관에 따라 이 책의 교리를 배웠던 것이다. 이처럼 18세기 후반에 천주교 서적이 일반 신자들에서 쉽게 녹아들 수 있었던 요인 중에는 국문 독자를 염두에 둔, 국문본 교리서의 출현과 낭독에 의한 독서 문화 향유가 컸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표현의 천주교 교리서 학습은 여성 및 하층민 독자를 늘리는 한 요인이 된 것이다.

19) 조한건(2011), 「필사본 <<성경직희광익>>의 편찬배경과 형성」,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와 문화』(김성태 신부 고회 기념논총), 한국교회사연구소, pp. 517-579.

## 2.2. 신유박해 이후~1880년대: 필사본에서 목판본으로, 목판본에서 활판본으로

신유박해(1801)는 천주교 신자들은 물론,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천주교 신자들을 겨냥한 첫 번째 대규모 박해 사건으로, 300여 명이 넘는 천주교 신자가 붙잡혀 죽임을 당했다. 이 사건 이후로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활동이 세상에 드러났고, 천주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퍼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도자를 잃은 천주교 신자들은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지켜 나가기 위해 천주교 서적을 활용한 천주교 교리 교육이 더욱 요구되었다.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려 한 신자들이 끝까지 지키고자 한 것이 바로 천주교 서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천주교 서적 보급과 유통은 식자층과 하층민 신자뿐 아니라 서양인 신부들의 헌신과 실천적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1830년대 이후에 국내로 들어온 프랑스 신부들은 오랫동안 천주교 서적 간행 또는 사전 편찬과 번역에 많은 준비를 해 왔다.

근 40년 전부터 조선에는 불란서 선교사들이 와 있다. 모든 나라 사람들 중에서 오직 그들만이 여러 해 동안 이 나라 말을 하고 쓰면서 이 나라에 살아왔다. (중략) 다블뤼(Daveluy) 주교는 오랫동안 漢·韓·佛 사전 편찬에 힘썼었고, 뿌르디에(Pourthie) 씨는 또 하나의 韓·中·羅 사전을 꾸몄었으며, 뿌띠니꼴라(Petitnicolas) 씨는 3만 이상의 라틴어와 10만에 가까운 조선어를 담은 羅·韓 사전을 지었었다.<sup>20)</sup>

필사본이 아닌 인쇄본, 곧 목판본 천주교 서적의 간행은 바로 이들 서양인 신부의 노력이 컸다. 1861년에 서울에 인쇄소를 차리고 천주교 교

20) 샤를르 달레(1979), 안응모·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上』, 분도출판사, p. 137.

리서를 목판본으로 간행하게 된 것은 하나의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베르뇌 주교의 지시 하에 출판 사업이 여러 해에 걸친 준비 작업<sup>21)</sup> 후 비로소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1862년경에는 『성교일과』와 『성찰기략』이, 1864년에는 『성교요리문답』, 『천주성교공과』, 『신명초행』, 『회죄직지』, 『영세대의』, 『주교요지』, 『천당직로』 등이, 그리고 1865년에는 『천주성교예규』, 『성교절요』, 『주년첨례광익』 등이 차례로 간행되었다.<sup>22)</sup> 이러한 목판본 인쇄는 당시 한글 소설을 방각업소에서 인쇄하던 출판, 유통 문화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한글 목판본 간행을 통해 천주교 신자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대량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글 출판이라는 기름 위에 천주교라는 종교 사상이 불을 질렀다”<sup>23)</sup>는 주장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필사본이 아닌 인쇄본 간행이 이루어지면서 보다 폭넓은 천주교 서적 출판과 유통이 가능해졌다.

1876년 개항 이후로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국내에 들어와 성서보급과 문자 교육에 집중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1877년에 리델 주교가 활판본 인쇄소 설립을 추진했다가<sup>24)</sup> 실패했다. 그러나 얼마 후 블랑 신부가 다

21) 선교사들은 신자 교육이 조선 교회에서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일이라 보고, 신자 교육에 필요한 책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교리서와 윤리서, 기도서 등에 관한 소책자를 집필하는 한편, 이를 보급하기 위해 1859년부터 서울에 인쇄소를 세우는 일을 계획하였다. 사전 저술은 이미 다블뤼, 푸르티어 신부 등에 의해 1850년대에 이루어졌고, 최양업 신부는 1859년경에 한문기도서를 국문으로 번역하고 국문본 천주교 서적 편찬 작업에 참여했다. 이때 조선인 출판 책임자로 최형(崔炯, 1814-1866)이 활동했다. 양인성(2010), 「조선인 사제의 등장」, 『한국천주교회사 3』, 한국교회사연구소, pp. 173-175; 방상근(2010), 「교회의 정비와 발전」, 『한국천주교회사 3』, 한국교회사연구소, pp. 221-225 참고.

22) 샤를로 달레(1979), 안응렬·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上』, 분도출판사, p. 136 각주 6번; 방상근(2010), 「교회의 정비와 발전」, 『한국천주교회사 3』, 한국교회사연구소, pp. 221-225 참고.

23) 정병설(2008), 「조선후기 한글 출판 성행의 매체사적 의미」, 『진단학보』 106, 진단학회, p. 154.

24) 이하 리델 신부와 스코트 신부의 천주교 서적 간행 내력에 관해서는 이장우(2011),



시 인쇄소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최우정(崔禹鼎)이 인쇄소 운영을 맡은 후 1882년에 비로소 활자본 『천주성교공과』가, 그리고 1884년에 『신명 초행』과 『성교예규』가 간행되었다. 코스트 신부는 1878년에 『한불자전』과 『한어문전』 원고를 들고 중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1880년에 요코하마 레비(Levi) 인쇄소에서 이를 간행했다.

이렇듯 기존에 천주교 관련 국문서적뿐 아니라 개신교 선교사에 의해 제작된 종교서적과 문자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기독교 신자를 포함한 국문 독자의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권서인이라 불리던 이들이 성경책이나 전도문서, 교리서, 기도문 등을 가지고 돌아다니며 포교활동을 하면서 한글을 가르친 것도 그 하나의 예다.<sup>25)</sup> 국문을 깨우친 신자 내지 일반인들은 자연스럽게 국문소설 향유가 가능한 잠재적 독자가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1880년대 활판 인쇄소의 존재는 얼마 안 있어 나타난 『독립신문』 등 신문 간행뿐 아니라 20세기 초에 활판본 고소설 제작의 근간이 되었다.<sup>26)</sup> 활판본 인쇄의 경우, 천주교 서적의 활판 인쇄기술과 독서문화가 자리 잡게 된 20세기 초에 이르러 비로소 활판본 소설(딱지본 소설)이 나타났다. 활판본 고소설 간행의 출판 환경이 천주교 서적 출판에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것이다. 천주교 서적이 필사본에서 목판본을 거쳐 활판본 형태로 변화, 간행된 과정은 한글 소설이 방각본

『교회의 교육·문화 활동』, 『한국천주교회사 4』, 한국교회사연구소, pp. 284-287을 참고할 것.

25) 권서인 등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보급하며, 문자 교육에 힘을 기울였다. 이에 관해서는 이민희(2007), 『16~19세기 서적중개상과 소설 서적 유통관계 연구』, 역락, pp. 82-85; 이만열(1990), 『초기 매서인의 역할과 문서선교 100년』, 『기독교사상』 34, 대한기독교서회, pp. 56-61 등을 참고할 것.

26) 필자는 1910년대에 등장한 소위 구활자본 소설(신연활자본 소설)이 19세기 후반에 서울에 출현한 천주교 및 개신교 인쇄소와 인쇄술의 발달 및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활자본으로서 그 조판 형태와 활자의 모양이 1880년대 초에 간행된 활자본 천주교 서적과 1910년대 초 구활자본 소설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이 그 하나의 예가 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 고증과 영향 관계 규명은 별도의 논문에서 논하기로 한다.

을 거쳐 활판본 형태로 변모, 간행된 것과 동궤를 이룬다.

### 3. 천주교 서적의 유통과 독서 문화의 상관성

#### 3.1. 천주교 서적의 상품화와 출판문화의 변모

이상에서 천주교 서적의 수용과 번역본의 출현, 그리고 출판 형태의 변화가 천주교 신자의 증가, 아니 국문 독자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천주교 신자의 증가 요인과 그 의미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처음에 지식인 양반들이 학문적 차원에서 서학서를 접했지만, 신자가 된 후에는 교리서를 중심으로 신앙을 유지해 나간 사실이 확인된다. 이때 하층민에게 교리를 쉽게 전하기 위해 문서선교에 힘을 기울인 사실이 소중하다.

둘째, 하층민과 여성 신자를 위한 한글 번역본 교리서의 등장이다. 중국에서 주문모(周文謨, 1752-1801) 신부가 1794년에 비밀리에 입국하기 전에 4천여 명이었던 신자 수는 주문모 신부의 입국 이후 더욱 불이 붙었다. 더욱이 평신도 모임인 명도회(明道會)<sup>27)</sup>를 중심으로 한 전도활동에 힘입어 신유박해가 일어나기 전 신자 수는 1만여 명으로 급증했다.<sup>28)</sup> 『황사영백서』에도, 1794년에 주문모 신부가 조선에 입국한 후로 신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전체 신자의 2/3가 부녀자이고, 나머지 1/3은 천민이라고 했다.<sup>29)</sup> 이에 반해 양반 또는 중인 지식인 신자들의 수는 상대적

27) 명도회는 중국인 신부 주문모가 조선에 입국한 후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선교 활동의 편의를 위해 조직한 모임이다. 일종의 교리 연구 모임으로 초대 회장이 정약종이었다.

28) 정약종(2012), 『주교요지』, 한국고등신학연구원(KIATS), p. 123.

29) 황사영(1975), 윤재영 역, 『황사영백서』, 정음사, p. 34. “경신년(=1794) 4월에 명도회에 가입한 후로 여러 교우들이 신공(神工)을 부지런히 힘썼고, 회원 아닌 사람들

으로 적었다. 1861년에는 신자의 수가 18,000여 명에 이를 정도였다.<sup>30)</sup> 이 신자들 중 다수는 여성과 하층민이었다.

이들이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근간은 성경도, 천주교 신부도 아닌, 천주교 서적이었다. 국문 번역본 교리서나 기도서, 관련 책자들은 당시 신자들에게 대단히 요긴한 신앙서였다. 신부가 없는 상태에서 의식을 거행하거나 강론을 행하기 위해서라도 책의 내용을 낭독하거나 외우는 일이 필요했다. 최소한 한글 낭독용 교리서나 몰래 혼자서 조용히 읽을 수 있는 한글 독서용 교리서가 필요했다. 기도서 및 교리서를 위주로 한 신앙 교육은 문자 교육뿐 아니라 낭독을 통한 암기 교육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여성과 하층민의 가슴에 파고들어 갈 수 있었다.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이 쓴 『한국서지』 소재 천주교 서적을 조사해 정리해 놓은 통계를 보면, 국문 필사본이 전체 105종 중 79종에 해당하는 75.2%에 이르렀다.<sup>31)</sup>

그런데 번역 교리서뿐 아니라 한글 집필 교리서도 등장했다. 이는 여성과 하층민 신자들의 요구와 신앙 교육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다. 기존 번역본이 여전히 어렵다고 여긴 정약중(丁若鍾)<sup>32)</sup>이 쉬운 국문본 교리서 『주교요지』(主教要旨)를 직접 써서 비식자층 신자들이 읽을 수 있

---

도 역시 쏠려서 자진해 움직여 모두 남을 감화시키기에 힘썼으므로, 그 해 가을에 서 겨울 사이에 무럭무럭 감화되어 하루하루 불어났는데, 부녀자가 3분의 2요, 무식한 천민이 3분의 1이었습니다. 사대부집 남자는 세상의 화가 두려워서 믿고 좇는 사람이 극히 적었습니다.(庚申四月, 明會報名之後, 諸友勸於神工, 會外之人, 亦從風而動, 皆以化人爲務, 秋冬之間, 蒸蒸向化, 日甚一日, 而婦女居其二, 愚鹵賤人居其一, 士夫男子, 懼怕世禍, 信從者狼少.)”

30) 샤를르 달레(1979), 안웅모·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下』, 분도출판사, p. 327.

31) 노용필(2008), 『한국천주교회사의 연구』, 한국사학, p. 191, p. 214. 그 밖에 국문 간행본은 17종으로 16.2%를 차지한다. 따라서 천주교 교리서는 당시 국문 간행본보다 국문 필사본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32) 정약현(丁若鉉), 정약전(丁若鎰)의 동생이자 정약용(丁若鏞)의 형으로, 교리 연구와 강론, 목상 등에 매진하면서 명도회의 회장이 되어 전도 활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도록 만들었다.

(사)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는 (중략) 일찍이 교우들 가운데 무식한 이들을 위해 한글로 『주교요지』 2권을 저술하였습니다. 이 책은 널리 성교(聖敎)의 여러 책에서 인용하고 자기의 의견을 보태서 지극히 쉽게 분명하게 설명하여 어리석은 부녀자나 어린 아이들이라도 책을 펴 보기만 하면 환히 알 수 있고, 한 군데도 의심스럽거나 모호한 데가 없었습니다. (중략) 그는 여러 가지 책에 흠어져 있어 온전히 논한 책이 없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요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여 장차 여러 책에서 뽑아 모아 부문별로 나누어 모아서 책을 『성교전서』라 하였습니다. 뒤에 성교의 교리를 배우는 사람에게 남겨 주려고 하였는데, 초고가 반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박해를 당하여 완성하지 못했습니다.<sup>33)</sup>

(사)에 의거할 때, 정약종이 쓴 『주교요지』는 “널리 성교의 여러 가지 책에서 인용하고 자기의 의견을 보태서 지극히 쉽고 분명하게 설명한” 책이었다. 이러한 책은 지식인 자신이 이해하고 소화시킨 교리를 독자를 고려해 눈높이 서술을 한 결과였다. 그러니 하층민 신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정약종이 옥중에서 죽기 직전까지

33) 황사영(1975), 윤재영 역, 『황사영백서』, 정음사, pp. 47-49. “嘗爲敎中愚者, 以東國諺文, 述主教要旨二卷, 博採聖敎諸書, 參以己見, 務極明白, 愚婦幼童, 亦能開卷了然, 無一疑晦處, … 又以爲天主諸德, 及各種道理, 本來浩汗, 而散在諸書, 無一全論, 讀之者難於領會, 將欲鈔集各書, 分門別類, 彙爲一部, 名曰聖敎全書, 以贈後學, 起草未半, 而被難不能成.”; 이 밖에도 관련 기록을 들면 다음과 같다.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는 신앙생활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부친으로부터 박해를 받으며 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지만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교리를 가르치고 교회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한글로 된 『주교요지』 책을 저술하여 상, 하권으로 펴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새 신자들이 그 책을 읽음으로써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윤민구 역주 (2000), 『신미년(1811)에 조선 천주교 신자들이 북경 주교에게 보낸 편지』, 『한국 초기 교회에 관한 교황청 자료 모음집』, 가톨릭출판사, p. 245.

집필하다 만 『성교전서』는 읽는 사람이 요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문별로 나눠 모아 놓은 것이었다. 이 역시 국문 독자(신자)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처럼 그가 죽기 직전까지 국문본 교리서 집필에 심혈을 기울인 이유는 그만큼 국문본 교리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천민 신자인 황일광(黃日光)이 죽기 전에 만민이 평등한 현실세계에서의 천주교회와 내세의 천국이 두 개의 천국이라는 주장을 폈는데, 이때 그가 편 주장은 바로 정약종의 『주교요지』에서 강조하던 것<sup>34)</sup>이었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국문본 교리서가 여성 및 하층민 신자의 신앙생활과 문자 생활에 강력히 작동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셋째, 국문본 천주교 서적이 필사본에서 목판본으로, 목판본에서 활판본으로 출판 형태가 변화하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고, 더 많은 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된 출판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평택 현감 이승훈과 양근(楊根) 사람 권일신을 잡아다 문초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전 가주서 홍낙안에게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신이 무신년(1788) 정대(廷對)에서 사학(邪學)을 크게 배척한 뒤에 서학을 하는 자들이 신을 원수처럼 질시하여 서로 교류가 끊어진 것이 마치 다른 나라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책을 간행하고 베끼는 것을 어찌 자세히 알겠습니까? 그러나 요즈음 들으니 이 학술이 다시 성해져서 활자로 간행됐다는 말이 역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달포 전에 전 승지 이수하(李秀夏)가 호서에서 상경하여 신의 집에 머물렀는데, 서학에 말이 미치자 신에게 근심하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우리 고향에는 이런 근심이 더욱 심하다. 베끼는 책들을 집집마다 감추어 두었을 뿐 아니라 간간히 활자로 인쇄한 책도 있다 한다. 내가 비록 목격하지 못하여 전적으로 믿기는 어려우나, 매우 성

34) 정약종(2012), 『주교요지』, 한국고등신학연구원(KIATS), p. 120.

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나도 형세를 보아 상소를 올리려 한다.’ 하였습니다.”<sup>35)</sup>

1791년 『정조실록』 기사 중 일부다. 평택 현감이었던 이승훈과 양주 출신의 권일신을 잡아다 문초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의 일부를 이정원이 정조에게 아뢴 내용이다. 여기서 주된 관심사는 서학 관련 서적의 간행 여부와 소장, 그리고 그 성행에 있었다. 천주교 서적이 지방까지 널리 퍼져 있었으며, 이들 책의 유통 및 향유 방식이 왕과 신하들 사이에서 큰 문젯거리였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소위 불온서적의 간행과 유통이 조선 사회에 미칠 영향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천주교 관련 다른 실록 기사에도 천주교 서적 간행 여부에 관심을 표명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천주교 서적을 간행했다는 구체적 기록은 찾기 어렵다. 천주교 서적을 간행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실제로 당시 목판본 교리서는 별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사학징의』에 기록된, 1801년 신유박해 당시 압수 서적 목록을 보면 목인판(木印版)이라고 적어 놓은 것도 있어 인쇄본이 있었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목인판이 천주교 서적이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데다, 있었다 할지라도 비중 면에서 필사본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사학징의』에 기록된 바, 당시 압수된 천주교 서적은 총 143종 209책으로, 이 중 국문본이라고 밝힌 것은 6종 8책이고, 한글로 제목을 표기한 책은 95종 128책이었다.<sup>36)</sup> 더욱이 “邪書諺書謄本 不知其數”라고 적고 있어 당시 국문 필사본 천주교 서적

35) 『정조실록』 33권, 1791년 11월 3일.

36) 『사학징의』에 의하면, 한신애(韓新愛)의 집에서 28종의 천주교 서적이, 김희인(金喜仁)의 집에서는 18종의 천주교 책자와 134건의 언문등서류(諺文謄書類)가, 그리고 윤현(尹鉉)의 집에서는 90종의 책자가 나왔다. 천주교 서적이 이렇듯 여성 신자와 하층 남성 신자의 집에 다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심이 뜨겁고, 서적의 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정병설은 한문 제목의 국문 책까지 염두에 둘 때 최소한 70% 이상이 국문본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정병설(2008), 『조선후기 한글·출판 성행의 매체사적 의미』, 『진단학보』 106, 2008, p. 154.

들이 주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작 천주교 서적의 목판 인쇄본이 본격적으로 간행된 것은 1860년대의 일이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활판본 간행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천주교 서적의 유통과 형태 변화가 국문소설의 변화 과정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필사본(세책본) 국문 소설이 유행한 것은 18세기의 일로 특히 18세기 후반(정조 대)에 그 성행 정도가 심했던 것을 여러 기록물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때 국문 소설을 즐겨 읽던 이들은 사대부 집안의 여성 독자들이었다. 소설의 상업적 유통(세책업)이 활발해지자, 19세기 이후로는 방각본 소설이 크게 성행하게 된다. 18세기에도 일부 소설이 방각본으로 간행되었다고는 하나,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다.<sup>37)</sup> 즉, 국문영웅소설류의 방각본 소설이 크게 성행한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의 일이다. 판소리계 소설을 비롯한 영웅소설, 그리고 각종 한글 소설의 성행이 방각본 간행과 유통에 힘입어 나타났으며, 20세기 초 활판본 소설(딱지본 소설)의 등장으로 연결된 것이다. 한글 소설의 유통 및 향유 흐름 역시 필사본->방각본->활판본의 순서로 발전해 나갔거니와 이는 출판 및 독서 환경의 형성과 변화뿐 아니라, 국문 독자의 증가, 그리고 사회, 경제적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sup>38)</sup>

37) 1725년 전라도 나주에서 한문본 『구운몽』이 간행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현전하는 한글 방각본 소설 중에는 1780년에 간행된 『임경업전』이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다. 기록상으로는 이옥이 쓴 『봉성문여』에서 1800년 경에 함천에서 방각본 『소대성전』을 보았다고 적은 것이 가장 앞선다. 이처럼 18세기 말에 일부 작품이 방각본으로 만들어졌을 뿐, 방각본 소설이 활발히 간행, 유행하게 된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의 일이다.

38) 서적 간행을 위해서는 종이 공급서부터 조판공, 비용, 출판업자 등 많은 관계자가 필요하다. 또한 유통 및 소비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이런 제반 조건이 갖춰지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독자)가 많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만큼 나라의 검열과 통제에서 벗어나 불온한 사상이 민간에 널리 유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왕과 신하들이 천주교 서적의 간행과 유포를 걱정했던 이유

넷째, 천주교 서적의 전문적 필사와 이의 유통이다. 천주교 모임 초기(18세기 후반)에는 교리서를 직접 필사해 소장하거나 나눠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관천(冠泉)이란 호로 더 잘 알려진 창현(昌顯)이라고 불리는 최요한도 역관 집안 아들로써 활동적이고 정력 많은 인물이었다. 천주교에 나온 후로는 모든 교회 서적들을 자기 손으로 베껴, 그것으로 크게 봉사를 하였다. 그의 책 베끼는 솜씨가 어떻게나 평판이 높았는지 책을 가지고 싶은 교우들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를 찾아갈 정도였다. 『主日과 祝日 성경의 해석』이라는 한문책을 조선말로 번역한 사람이 그였다고 한다.<sup>39)</sup>

그러나 18세기 말~19세기 전반기에는 국문본 천주교 교리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필사해 나눠주거나 ‘판매’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1790년대에 이미 천주교 서적을 필사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은 전문 필사자가 존재했다.

(1) 손경윤(孫景允)이 윤태흠(尹泰欽)에게 사서(邪書) 10책을 6냥에 판매했다.<sup>40)</sup>

(2) 강복혜(姜福惠)는 남구월(南九月)의 딸에게서 천주교 교리서 1책을 1냥 7전에 구입했다.<sup>41)</sup>

(3) 김세박(金世博) 암브로시오는 (중략) 1791년 이후로 가족을 하직한 후 지방의 교우집들을 찾아가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며,

---

도 바로 이 때문이다.

39) 샤를르 달레(1979) 안응모·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上』, 분도출판사, p. 315.

40) 한국교회사연구소 편(1977), 『邪學懲義』(한국교회사연구자료 제7집), 불함문화사, p. 215. “尹泰欽. … 給錢六兩買該冊十卷於孫景允”

41) 한국교회사연구소 편(1977), 『邪學懲義』(한국교회사연구자료 제7집), 불함문화사, p. 345. “身欲買邪冊次給錢一兩七錢於九月之女兒”



그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성서를 베껴 생계를 꾸려 나갔다.<sup>42)</sup>

(4) 소위 요서(妖書)를 때론 직접 써서 전해주거나 돈을 받고 돌아다니며 팔았다.<sup>43)</sup>

(5) 또 손으로 사서(邪書)를 베껴 써서 많은 사람에게 전해 주거나 혹은 돈을 받고 다니며 팔았다.<sup>44)</sup>

(6) 직접 요서(妖書)를 만들어 도처를 돌아다니며 팔았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을 속이고 잘못에 빠뜨릴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미혹했다.<sup>45)</sup>

(7) 송건(宋健)은 이문동에서 살았다. 그의 아내로부터 고가(雇價)를 받고 사책(邪冊)을 베껴 쓰는 죄를 저질렀다.<sup>46)</sup>

(3)~(6)에서, 김세박(3) 등 여러 신자들이 천주교 서적을 베껴 써 가지고 여러 곳을 다니며 책을 팔았다고 했다. 이들은 필사와 판매를 겸했던 이들로 행상인의 성격마저 보인다. 신앙인으로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한편, 신앙을 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천주교 서적의 필사와 판매를 행했던 것이다. (7)의 경우처럼, 비록 본인은 비신자이지만 전문적 필사자로서 아내로부터 임금을 받고 필사를 행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1)과 (2)처럼 서학서를 매매하기도 했다. 『눌암기략』(訥庵記略)(1798)에 보면 “사서가 크게 유행하여 임시자(賃書者)가 큰 이득을 얻었는데, 반 이상이 언문

42) 샤를르 달레(1979), 안응모·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中』, 분도출판사, p. 177.

43) 한국교회사연구소 편(1977), 『邪學懲義』(한국교회사연구자료 제7집), 불함문화사, p. 134. “所謂妖書, 或手書傳給, 或俸錢行賣.”

44) 한국교회사연구소 편(1977), 『邪學懲義』(한국교회사연구자료 제7집), 불함문화사, p. 135. “且手謄邪書, 傳給多人, 或俸錢行賣.”

45) 한국교회사연구소 편(1977), 『邪學懲義』(한국교회사연구자료 제7집), 불함문화사, p. 122. “手造妖書, 爛漫行賣, 詭誤多人, 誑惑一世.”

46) 한국교회사연구소 편(1977), 『邪學懲義』(한국교회사연구자료 제7집), 불함문화사, p. 253. “宋健. 居里門洞. 其妻受雇價, 謄書邪冊之罪.”

서적이었다”<sup>47)</sup>고 했다. 천주교 서적이 크게 유행하여 이를 베껴 쓰는 전문가[賃書者]가 큰돈을 벌었는데, 이때 취급한 서적의 과반수가 국문본이었던 것이다. 전문 필사자가 쓴 한글 필사본 서적이 큰 이익을 남길 정도로 널리 읽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역시 필사본 고소설의 세책업 영업과 유사하다. 18세기 중 후반에 이미 소위 세책본 소설이 전문 필사자에 의해 필사되어 대여의 방식으로 널리 유행했던 사정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sup>48)</sup> 무엇보다 천주교 서적과 세책본 소설의 공통점으로 첫째, 전문 필사자가 있었다는 점, 둘째, 이 필사본이 매매 또는 대여, 임사(賃寫)의 방식으로 생계 수단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셋째, 한문본이 아닌 국문본으로서 고객이 여성과 하층민 대상이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당시 채제공, 이덕무 등이 세책본 소설의 성행을 증언하고 있거니와 이렇듯 필사에 의한 국문 소설의 상업적 유통은 천주교 서적의 필사와 매매 유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로 보더라도 사대부 여성뿐 아니라 천주교 관련 여성 및 하층민 신자가 국문소설뿐 아니라 국문본 천주교 서적의 독자로 겹치는 지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천주교 서적 전문 필사자는 신유박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했다.

(8) 청주에서는 김사집 프란치스코의 순교를 말해야겠다. (중략) 그는 글씨를 잘 썼다. 그래서 그는 천주교 서적을 많이 베낀 후 책을 살 수 없는 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책을 거저 주곤 했다. 이와 같이 착한 행실이 가득한 생애로 프란치스코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에 힘썼다. 그러나 박해가 일어나자 그가 베껴 쓴 책들이 많이 압

47) 이재기(李在璣), 『訥巖記略』; 부산교회사연구소에서 간행한 『부산교회사보』 38-43호에서 『놀암기략』을 소개한 것을 참고한 것이다. “丁巳戊午間, 邪書代行, 賃書者, 獲大利, 諺文過半矣.”

48) 이민희(2007), 『조선의 베스트셀러-조선후기 세책업의 발달과 소설의 유행』, 프로네시스, pp. 20-27.

수되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관헌에 이 사실이 보고되었다. 배반자 두 명이 그의 명성에 끌린 것처럼 꾸며 놓고는 책 몇 권을 사겠다며 그럴 듯한 이유를 들어 그의 집을 살펴보고 간 뒤 얼마 후 포졸들을 데리고 와 그를 잡아가고자 했다.<sup>49)</sup>

(9) 이(李) 요한은 어렸을 때에 부모의 원대로 일을 하는 틈틈이 글공부를 하였다. 그래서 천주교 서적을 많이 베껴 교우들에게 팔기도 하고 주기도 하였다. (중략) 그때 간혀 있는 교우 여럿이 그들 집에서 압수당한 책을 이(李) 요한이 베꼈다고 고해 바쳤다.<sup>50)</sup>

(10) 안(安) 군심 리칼도는 본시 보령(保寧) 고을 사람으로 (중략) 자기와 집안 식구들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하여 성교(聖敎)의 서적을 베끼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1827년에 안 리칼도는 자기 손으로 베낀 많은 책으로 인하여 반드시 혐의를 받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sup>51)</sup>

(8)에서 청주에 살던 김사집은 천주교 서적을 필사하는 재주가 뛰어나 국문으로 쓴 필사본 교리서를 필요로 하는 신자들에게 거저 나눠주곤 했다고 했다. 원래 필사본을 직접 ‘사야’ 했지만, 그는 자신의 필사본을 ‘거저’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붙잡히게 된 이유는 바로 천주교 서적의 필사와 판매 때문이었다. 집필이나 번역보다도 유통을 더 큰 문제로 보고, 이를 엄단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9)~(10)처럼, 필사본을 제작해 천주교를 전하는 일을 하는 한편,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보탬을 얻었던 전문 필사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세책점을 통한 세책본 소설이 19세기에도 지속적으로 성행한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49) 샤를르 달레(1979), 안응모·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上』, 분도출판사, pp. 607-608.

50) 샤를르 달레(1979), 안응모·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中』, 분도출판사, p. 116.

51) 샤를르 달레(1979), 안응모·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中』, 분도출판사, pp. 172-174.

3.2. 천주교 국문 서적의 유통과 국문 독자층 확대의 상관성<sup>52)</sup>

천주교 교리서의 유통 환경과 메커니즘 구축은 국문 소설의 유통 및 발전에 적잖은 기여를 했다. 이는 역으로 국문소설의 유통, 출판 환경이 천주교 교리서 유통과 출판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 발전 단계를 고려할 때 양자에 대한 상보적 이해가 가능하다. 따라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 이후에 이르는 시기에 나타난 천주교 서적의 유통과 출판문화, 그리고 필사본에서 방각본, 그리고 활판본으로 이어지는 국문 소설의 간행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천주교 서적의 유통과 향유는 하층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신자층을 확보하고 국문 독자 형성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는 점이다. 외국인 선교사의 기록물에서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1857년에 프랑스 선교사였던 베르뇌 주교는 평신도 지도자인 회장들에게 권면하는 글에서, “언문이나 진서를 가르치면 도리를 밝히기에 긴요할 것이요, 영육에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니 이를 위하여 간절히 권하노라.”<sup>53)</sup>고 했다. 이는 천주교의 교세 확장과 포교를 위해 문서 선교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그 성과 또한 적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신자가 된 평신도 중에는 우연히 천주교 서적을 읽고 입교한 경우도 있었다.<sup>54)</sup> 비록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신자가 된 이들은 한글을 깨우치게 되고 국문 서적을 독서할 수 있는 잠재 독자가 되었다. 그 반대로 국문 독자가 천주교인이 될 수도 있었다. 이런 점에서 국문본 교리서의 유통은 국문 독자 인구의 증가를 설명하는데 의미가 있다. 한 번 한글을 깨친 여성 및 하층 남성 독자는 교리서

52) 여기서 한문소설은 향유층이 다르기 때문에 한문소설의 유통 문제는 논외로 한다.

53) 장경일(1982), 『장주교운시제우서(張主教輪示諸友書)』, 『순교자와 증거자들』, 한국교회사연구소, p. 169.

54) 샤를르 달레(1979), 안응렬·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下』, 분도출판사, p. 254. “80이 거의 다 된 노인이 천주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손에 들어온 우리 교회 서적 한 권을 읽고 천주교가 진리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학습은 물론이려니와 죽기 전까지 언제든지 국문 자료를 읽고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당대에 유행하던 국문 소설의 독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그것은 사대부 집안의 상층 여성뿐 아니라, 양민과 천민 남성과 여성까지 독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독서문화 기반의 변화를 의미한다. 18~19세기의 국문소설 독자 형성 및 확대와 관련해 상층 여성이 교양 차원에서 국문을 익혀 문자생활을 영위하면서 국문소설까지 자연스럽게 애독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 외에 기생, 하층 남성, 그리고 천주교 여성 신자들의 국문 독서 생활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55)</sup>

둘째, 인쇄본의 증가가 국어 생활에 미친 영향이다. 필사본뿐 아니라 목판본(방각본)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독서 향유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고정된 표현과 통일된 어휘를 사용한 문어체는 그 사용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다. 천주교 교리서의 목판 인쇄는 판본을 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용어 및 표현이 어느 정도 통일성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일관된 교리 용어 사용과 표현이 전도 및 신앙 결속에 유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천주교 인쇄본뿐만 아니라 필사본과 방각본 소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일정한 문어체는 필사본에서 마련되었거니와 통일된 표기와 어휘를 구사하는 대중적 출판물이 유통됨으로써 향유층의 언어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sup>56)</sup> 물론 국문 문어체의 성립은 개화기에 언문일

55) 신자의 신분을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단적으로 1866년 병인박해 때 체포된 천주교 신자 3,475명 중 신분이 확실한 이들(전체의 8.26%에 불과한 287명)을 조사한 결과, 중인은 전체의 0.29%, 천민은 전체의 0.01%, 그리고 양반은 전체의 7.8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신자는 전체의 91.74%에 해당하는 평민들이었다. 그리고 남성이 72.55%이고, 여성이 27.45%를 차지한다. 노용필(2008), 『한국천주교회사의 연구』, 한국사학, p. 197.

56) 독일의 경우, 인쇄술이 문어체 통일에 기여한 바가 컸다. 정확하고 분명히 내용을 기록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인쇄술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형태적인 체계가 자리를 잡고 교양인 계층이 대표적인 문어로 인식하는 철자법이 나타난 것이 그 한 예가 된다. 특히 루터의 성경을 비롯한 여러 저서들이 확산되면서 독일어의 규칙이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뤼시앵 페브리·앙리 장 마르탱(2014), 강주현·

치 운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지만, 그 문화적 전통 기반은 이전에 다수가 향유하던 독서물에서 시도되고 있었던 것이다.

개항 이후인 1885년 2월에 이수정이 일본에서 번역, 간행한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미국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를 통해 간행되었는데, 무엇보다 모든 대중을 대상으로 한 번역본으로, 당시의 입말을 비롯해 글말까지를 모두 포함한 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종교 서적이지만 한문 독서문화 환경에서 한문 독서와 국문 독서라는 이중 구조를 서구문화와 한글문화의 이중 구조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간행물로 평가된다.<sup>57)</sup> 이처럼 기독교 서적 간행이 국어 표현 및 어휘 정립에 기능했던 바를 무시할 수 없다.

셋째, 천주교 서적 향유와 소설 독서와의 관련성이다. 『정조실록』의 일부를 보자.

상이 이르기를,

“(중략) 근래 문체(文體)가 날로 더욱 난잡해지고 또 소설을 탐독하는 폐단이 있으니, 이 점이 바로 서학에 빠져드는 원인이다. (중략) 근일에는 경학이 쓸어버린 듯이 없어져서 선비라는 자들이 장구(章句)에 좋은 글귀를 따다가 과거볼 계획이나 하는 데 지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러한 이학(異學)의 사설(邪說)에 빠지고 있으니 어찌 크게 탄식할 만한 일이 아닌가.”<sup>58)</sup>

서학의 국내 유포와 관련해 정조와 신하 간에 주고받은 내용 중 일부다. 1788년에 서학의 유포 문제와 관련한 상소가 계속 이어지자, 정조는

---

배영란 역, 『책의 탄생』, 돌베개, pp. 540-543. 이는, 국내의 경우, 천주교 교리서와 각종 간행물이 필사가 아닌 출판물로 대량 보급되면서 문어 사용의 통일과 표현의 관습을 더 확고히 갖추게 되었음을 추측케 하는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된다.

57) 정길남(1984), 『이수정 역 마가복음의 국어학적 고찰』, 『한국학논집』 6,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pp. 155-156.

58) 『정조실록』 26권, 1788년 8월 3일.

서학과 관련해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유생들이 더 이상 독서(공부)하지 않으려 하고, 소품문을 즐겨 짓는 데 있다면서 서학에 탐닉하는 이유를 글쓰기 문제에서 찾고 있다. 즉, 소품문 또는 소설류 탐독 요인과 서학에 빠져드는 요인이 동일하다고 본 것이다. 물론 이때 정조가 비판한 소설이란, 여성들이 읽던 국문소설이 아니라 김성탄 평비본 중국소설이나 소품문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비판의 핵심에는 사상(내용)적인 측면뿐 아니라, 이들 글쓰기가 지닌 불온성과 전복성, 가벼움, 일탈성, 그리고 표현과 형식 문제 등 제반 속성을 모두 고려한 것이었다. 달리 말하면, 서학에 빠져 들게 만드는 글쓰기 환경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비판은 결국 당시 사상과 문체, 그리고 언어 사용 및 표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문 천주교 서적을 많이 읽을 경우, 소품문 독서와 마찬가지로 문체가 난잡해지거나 불온해 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 것이다. 천주교 서적이나 중국소설과 소품문 류의 글은 공히 어리석은 백성이 보고 느끼기 쉬운 책이라는 점, 현혹되기 쉽고 영향력이 막강한 잡서라는 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설 독자와 천주교 신자를 동일시하는 분명한 언급은 없지만, 이미 사회 전반에 걸쳐 불온한 책을 간행했을 때 그 독자가 될 대상을 상정하고, 그것이 개인이든 계층이든 상관없이, 이를 두려워했던 것이다.

정약종의 문서 가운데 일컬은 강거능파(姜巨能巴)라는 자는 곧 반족(班族)의 여인으로 사학(邪學)에 깊이 빠졌는데, 정약종이 곧바로 아뢰지 않은 것을 흉남임이 곧 지명하여 고하였으니, 바로 홍필주(洪弼周)의 어미였습니다. (중략) 이시수(李時秀)가 말하기를, “강 여인의 지극히 간악하고 요사스러움은 이미 논할 것조차 없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족과 여항을 논할 것 없이 무릇 부녀로서 이 사학을 하는 자들은 문서에서 적발된 진장이 많이 있으니 남김없이 죄다 소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야 점차 물들어 만연되는 근심이 없을 것이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장차 어떤 지경에 이

르게 될지 모릅니다.” 하였다.<sup>59)</sup>

『순조실록』에도 보면 여성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이들 여성 신자 중에는 사대부 집안의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다. 흥필주의 모친 같은 사대부 집안의 여성도 천주교에 깊숙이 빠져 들었고 여항의 여인들도 다수 신자가 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그냥 내버려둔다면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갈 것이라 했다. 일부 사대부 남성과 여성, 그리고 하층민 남성과 여성은 천주교 서적의 잠재적 독자라는 공통분모를 깔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나오며

일반 대중의 문자 해독률과 교육인구의 증가는 도시 인구의 집중과 상업경제의 발달, 그리고 시민의 신분상승 욕구와 같은 일련의 사회발전 내지 변동에 크게 좌우된다. 또한 매체의 노출이 빈번하면 할수록 문자 해독률 또한 높아진다.<sup>60)</sup> 즉, 출판부수, 독서 횟수 및 독서 환경 등에 의해 매체의 노출빈도가 결정되는데, 사회 변화에 따른 매체 노출의 기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문자 해독률이 높아지고, 독자들의 독서 능력 역시 향상된다. 서적의 보급 및 유통, 독서 환경, 독자층의 확대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 국문 사용자의 증가는 어문생활의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었다. 그중 천주교 신자들의 국문 교육과 국문 서적의 필사 내지 유통, 그리고 간행은 하층민과 여성의 문자해독률을 높이고, 더 나아가 국문소설의 독서 인구와 유통 문화를 견인하는 요인이 되었다. 본고는 이 양자

59) 『순조실록』 2권, 1801년 2월 25일.

60) Learner Daniel(1964), *The Passing of Traditional Society*, London: The Free Press, pp. 61-64, pp. 66-67.



의 관계와 발전 양상에 관해 거칠게나마 살펴보고자 했다. 그동안 국문 독자의 형성 문제와 관련해 간과하기 쉬웠던 천주교 신자들의 국문 사용과 국문 천주교 서적의 필사 및 간행, 그리고 그 유통의 의미와 기능을 실록과 외국인 기록물을 중심으로 역사적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이들이 천주교에 급속도로 빠져들 수 있었던 요인에는 국문을 익히고 교리서를 통해 신앙심을 키워 나간 것이 컸다.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모임을 갖고, 강독을 하면서 천주교 교리를 학습하고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갔는데, 교리서, 쪽 복음서, 주기도문, 기도서 등 국문으로 된 글과 책을 읽는 것이 매개적 수단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물론 18세기 말~19세기 초 천주교 서적의 유통과 국문 교육이 국문소설 출판 및 독서에 얼마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살필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자는 시대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 직간접적 영향을 주고받으며 국문 독서문화와 국문 소설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근대로 들어서기 전 국문 사용 환경과 독서문화의 형성, 그리고 국문소설 독자의 확대 문제를 좀 더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국문 독자의 형성 과정을 살피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했다.

비록 천주교 서적이 국문본으로 번역, 또는 집필되어 신자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는 하나, 일반 신자들이 모두 한글을 깨치고 국문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낭독을 통한 교리 학습과 듣는 독서 또한 천주교 신앙생활의 일부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당시 교리서뿐 아니라 고소설이나 다른 국문본 도서를 읽는 방식이 묵독이 아닌 음독, 또는 낭독에 의한 것도 중요한 향유 방식이었음을 상기할 때 더더욱 그러하다. 이처럼 천주교 서적과 국문소설의 향유 방식의 공통점 또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독서 및 출판문화의 실상을 증언하는 외국인 기록물 중 하나로 천주교 관련 자료를 두루 참고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 이런 점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자 료】

- 한국교회사연구소 편(1977), 『邪學懲義』(한국교회사연구자료집총서 제7집), 불함문화사.
- 서종태·한건 엮음(2004), 『천주교신자 재판기록(上)』, 국학자료원.
- 『순조실록』 2권, 1801년 2월 25일.
- 『승정원일기』 권84, 1785년 4월 9일; 권90, 1791년 11월 3일.
- 안정복, 『天學考』, 『順菴先生文集』 권17.
- 이기경 편, 『刑曹啓辭』, 『벽위편』 권1, 1791년 11월 13일.
- 『李基讓等推案』, 『推案及鞫案』, 1801년 3월 17일.
- 이재기, 『訥巖記略』, 『부산교회사보』 38~43호 수록.
- 정약중(2012), 『주교요지』, 한국고등신학연구원(KIATS).
- 『정조실록』 33권, 1791년 11월 3일; 11월 7일; 11월 8일.
- 『정조실록』 26권, 1788년 8월 2일.
- 조광 엮음(1997), 『조선왕조실록 천주교사 자료모음』,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
- 조광 편저(1999), 권내현 역, 『정조 시대 천주교사 자료집』(1, 2),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
- 황사영(1975), 윤재영 역, 『황사영 백서』, 정음사.
- 홍낙안, 『魯巖集』 권1.
- Dallet (1874), *Histoire de l'Eglise de Corée, tome II, II*, Paris: Victor Palme; 샤를로 달레(1979), 안응렬·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上~下)』, 분도출판사.

### 【논 저】

- 김수진(2006), 『한국기독교 선구자 이수정』, 진흥.
- 김진소(2005), 『초대교회 신앙공동체의 ‘하느님 말씀’살이: <성경직해광익>을 중심으로』, 『이성과 신앙』, 수원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 노용필(2009), 『조선후기 천주교 한글 필사본 교리서의 유통』, 『인문논총』 23,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_\_\_\_\_ (2008), 『남회인의 <교요서론> 수용 및 국문본 <교요서론> 유포와 조

- 선후기 천주교의 성장, 『한국천주교회사의 연구』, 한국사학.
- 뤼시앵 페브리·앙리 장 마르탱(2014), 강주현·배영란 역, 『책의 탄생』, 돌베개.
- 방상근(2010), 『교회의 정비와 발전』, 『한국천주교회사 4』, 한국교회사연구소.
- 배현숙(1984), 『조선에 전래된 천주교 서적』, 『한국교회사 논문집』 1(한국천주교회창설 200주년기념), 한국교회사연구소.
- 양인성(2010), 『조선인 사제의 등장』, 『한국천주교회사 3』, 한국교회사연구소.
- 이덕주(2009), 『한국 교회 이야기』, 신앙과지성사.
- \_\_\_\_\_ (1985), 『초기 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기독교문사.
- 이만열(1990), 『초기 매서인의 역할과 문서선교 100년』, 『기독교사상』 34, 대한기독교서회.
- \_\_\_\_\_ (1987), 『한국기독교 문화운동사』, 대한기독교출판사.
- 이민희(2012), 『20세기 초 외국인 기록물을 통해 본 고소설 이해 및 향유의 실제 - *The Korea Review* 수록 ‘Korean Fiction’을 중심으로 -』, 『인문논총』 67,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 \_\_\_\_\_ (2007), 『16~19세기 서적중개상과 소설·서적 유통관계 연구』, 역락.
- \_\_\_\_\_ (2007), 『조선의 베스트셀러-조선후기 세책업의 발달과 소설의 유행』, 프로네시스.
- 이성우(2003), 『한국 천주교회의 우리말 성서번역사와 우리말 성서번역의 의미』, 『한국 근·현대 100년 속의 가톨릭교회(상)』, 가톨릭출판사.
- 이장우(2010), 『교회의 교육·문화 활동』, 『한국천주교회사 4』, 한국교회사연구소.
- \_\_\_\_\_ (2009), 『한역 서학서의 도입과 유학자들의 반응』; 『조선 천주교회의 설립』, 『한국천주교회사 1』, 한국교회사연구소.
- 임충신·최석우 역주(1984), 『최양업 신부 서한집』, 한국교회사연구소.
- 장경일(1982), 『장주교윤시제우서(張主教輪始諸友書)』, 『순교자와 증거자들』, 한국교회사연구소.
- 정길남(1984), 『이수정 역 마가복음의 국어학적 고찰』, 『한국학논집』 6,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 정병설(2008), 『조선후기 한글 출판 성행의 매체사적 의미』, 『진단학보』 106, 진단학회.
- 조 광(2006), 『朝鮮後期 西學書의 受容과 普及』, 『민족문화연구』 4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_\_\_\_\_ (1977), 「<사학징의>의 사료적 가치」, 『邪學徵義』(한국교회사연구자료 7집), 불함문화사.

조한건(2011), 『필사본 <성경직히광익>의 편찬배경과 형성』,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와 문화』(김성태 신부 고회기념논총), 한국교회사연구소.

차기진(2002), 『조선후기의 서학과 척사론 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최석우(1991) 『천주교의 수용과 조선 정치문화의 변화』, 『한국교회의 탐구』 2, 한국교회사연구소.

\_\_\_\_\_ (1982), 「성경 한글번역에 있어서 한국천주교회의 선구적 역할」, 『한국 교회의 탐구』, 한국교회사연구소.

페르비스트(2013), 노용필 역, 『교요서론-18세기 조선에서 유행한 천주교 교리서』, 한국사학.

Learner Daniel (1964), *The Passing of Traditional Society*, London: The Free Press.

원고 접수일: 2014년 10월 1일

심사 완료일: 2014년 10월 20일

계재 확정일: 2014년 10월 30일

ABSTRACT

---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istribution of Catholic Books and the Reading Culture of Korean Books from the Late 18th Century to the 19th Century

LEE, MIN HEUI\*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istribution and publication of Korean Catholic books, and to connect this phenomenon with the increase of Korean users, with view to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ate of literacy and the frequency of media exposure.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 meaning of using the Korean alphabet and the reading of Korean books by believers of Catholicism, which is an topic that has tended to be overlooked in relation to the issue of the formation of Korean readership. The Korean education of Catholicism through Korean Catholic books brought about an increase in the literacy rate of the lower classes and women. Catholic books developed from manuscript form, into wooden-block print form, and finally into printed book form. The mass production of these Catholic books was required by the Catholic faith. It eventually led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Korean readers. The manuscripts, distribution, and publications of Korean Catholic books became a form of power that increased the number of literate people and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distribution culture of Korean novels.

---

\* Department of Korean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